



자조금 3원에서 5원으로 인상

– 계열사 3원, 농가 2원 부담 키로 –



지난 6일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(위원장 이홍재)는 대전에서 대의원회를 개최하였다. 자조금 인상안을 확정짓고 계열사에서 3원, 농가에서 2원을 부담해 총 3원에서 5원으로 인상키로 했다. 자조금 인상과 관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한병권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대의원장은 “농가와 계열사의 신뢰구축으로 육계산업이 발전하고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”고 했다. 한편 이날, 김의겸 사장(산내들농장)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육계산업 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졌다. 양계

▲ 한병권 대의원장

● 수상자 명단

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– 김의겸 사장(산내들농장)

농협중앙회장상 – 이순준 사장(노티농장)
유정연 사장(금곡종계장)

(사)대한양계협회장상 – 백성순 사장(성경농장)
이호진 사장(호진농장)

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장상 – 김대영 사장(대영농장)
김진동 사장(창동부화장)

공로패 – 권영웅 원장(농협목우촌 연구개발원)
김삼수 원장(농협중앙회 축산연구원)